



“舊역본 3백여곳 오역등 발견”

‘일승법계도합시일인’ 펴낸 김지전 박사

圖界法乘一嚴華

一微塵中含十劫發心時便正覺生死
一量無是即方成益寶兩議思不意
一即初遠劫念一別生佛普賢大人如
一即多劫即一切隔滿十學人能境出
一十是如亦中離空令無然安事理和
一即世互相即仍不衆生隨器得利益是
一相二無融圓性法匠際本認者行故
一諸短所知非餘佛息畫實莊嚴法界
一法華甚注真境為無隨家歸意實
一中多不切深極微妙名想尼介得資如
一多切動一絕相無不助心羅階以程
一本來寂無名守不不得無緣善巧
一一成終隨性自來獲床道中際實坐

“의상스님이 만든 법성계(法性界) 인장(印章)을 법계도나 화엄도 해인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 불교의 영향입니다. 해인사 관본의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總錄))에는 ‘일승법계도합시일인’ (一乘法界圖合詩一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장의 이름을 찾는 것에서 의상스님의 해동화엄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김지전박사(전통불교연구원장)는 최근 (법계도기총수록(이하 ‘총수록본’)의 ‘일승법계도합시일인’을 새롭게 번역하고, 구(舊)역본과 교감·역주해 오역(誤譯)·탈자 등을 바로잡은 (일승법계도합시일인(조통 권 6천5백원)을 출간했다.

“가지가치의 꽃으로 잠입된 일승(一乘)의 진리로운 세계의 모습”이라는 뜻의 ‘일승법계도합시일인’은 의상스님(625~702)이 화엄사상의 요지를 210자의 간결한 시(詩)로 축약한 법성계를 54각(角)이 있는 도인(圖印)에 합쳐서 만든 것. 그동안 국내 불교학계는 (대일본속장경) (대정신수대장경)

화엄일승법계도 原名 ‘일승법계도합시일인’

“원래문장 밝혀 화엄사상 바로전달”

등 일본의 대장경만을 근간으로 번역해왔다.

그러나 김박사는 “(총수록본)과 일본의 대장경의 ‘일승법계도합시일인’을 비교하면 3백여곳에서 오역·탈자·과자(訛字) 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박사에 따르면 (총수록본)에서 ‘무장(無障)법계’는 연기의 본체인 상상의 편와 요소는 세계 안에 존재한 것으로 풀이돼야 하는데 (대정신수대장경)에는 이 요소를 세계 자체로 해석하고 있다.

김박사는 “세계는 상상이고 연성(緣成)이며 장(場)이기 때문에 연기의 본체를 세계 자체로 볼 수 없

다”고 (대정신수대장경)이 오역임을 지적했다.

또 “(총수록본)의 ‘일승법계도합시일인’에서 ‘일승소목’ (一乘所目)은 ‘일승(一乘)에 붙여진 편의상의 명목’으로 해석된 반면 구(舊)역본에서는 ‘일승소목’을 ‘일승의 목적’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일승(一乘)에 붙여진 편의상의 명목’으로 해석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총수록본)에서 ‘즉불자재 불자재자’ (即不自在 不自在者)는 (대정신수대장경)에서는 ‘즉불자재자’ (即不自在者)로 기록돼 ‘不自在’가 탈락됐다”며 “‘自在’는 ‘자재로서 존재는 것’으로 존재의 근거를 자체에 두고 타(他)에 원인·조건 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라며 (대정신수대장경)의 탈자(脫字)도 지적했다.

김지전박사는 “‘일승법계도합시일인’의 저본을 잘못 선택해 의상스님의 화엄사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왔다”며 “이 책이 해동화엄의 정수를 살피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나와 경전



승만경



안지원 서울 신업대 강사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새벽염불 소리를 듣고 뜻도 모른채 따라 하면서 성장하였다. 그 염불이 (천수경)이라는 것도, 예수님 이름은 하나여서 편한데 부처님의 이름은 석가모니불에서 관음보살로 또 지장보살로 약사불로 아미타불로 왜 자주 바뀌는지의 궁금증을 품게 된 것도 훗날 대학에 들어가서 고 나서다. 대학에 들어가 불교사상에 매료되어 불교관계 서적들을 많이

읽게 되었어도 여전히 신행생활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처님의 무량무변하신 자비만을 바라며 속인으로서는 하루하루에 바쁘지만 하였던 할까? 더욱이 불교의 차별적(?) 여 성관에 대한 거부감으로 부처님께 선 뜻 귀의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 당시 나의 심정이었다. 현실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수행에 있어서 차별이 심하고 더욱이 성불도 할 수 없다면, 여성에게 불교가 어떤 의미가 있던 말인가? 이러한 오만한 아상과 편벽된 지식에 집착하여 부처님 가르

하였는데 그 가운데 (승만경)은 불교를 조금 안다고 자부하고 있던 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부처님을 여성 차별주의자로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을 철학적인 관점에서만 받아들이고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중요 경전은 아닐지라도 (승만경)은 우리 여성 불자들에게는 들도 없이 소중한 경전이다. 여성인 승만부인이 후대에 인간

과 천상세계를 다스리는 자재왕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보광여래가 되리라는 수기를 석가모니불께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의 설법으로 펼쳐지는 다른 경전들과는 달리 승만이라는 한 재가여인의 입을 통하여 대승의 진리가 펼쳐지고 있다.

‘중생 모두 불성’ 여래장사상 다룬 경 승만부인의 열가지 서원 ‘신행표표’

침을 실천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그 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한국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자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자연히 더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 신라 왕실은 이를 적극 후원하여 진평왕은 자신의 이름을 석가모니불의 부친이었던 정반왕을 본따 정반으로 하고, 왕비는 마야로, 동생들도 정반왕의 동생들의 이름인 백반과 국반으로 이름지었다. 진평왕의 딸인 덕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다. 신덕(善德)이란 왕명도 역시 (대방등무상경)에서 석가모니불로부터 전륜성왕이 되리라 예언받았던 선덕마린에서 비롯된 불교적 왕명이다. 선덕여왕의 사촌동생으로 그 뒤를 이어 즉위한 진덕여왕의 이름은 승만이었었는데 이는 (승만경)의 주인공인 승만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세분 뿐인 여왕 가운데 두분이 통치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도 불교와 밀접하였던 것이 흥미를 끌었다. 더욱이 남자를 못지 않게 훌륭히 나라를 다스린 두 여왕을 배 출해 낸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적인 배경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관련된 경전들을 읽기 시작

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경이다. 승만부인이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감격하여 부처님께 서약한 열가지 서원은 (승만경)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첫째, 마음으로도 받은 바 계를 범하지 않겠다. 둘째, 뒷사람에게 교만하게 굴지 않겠다. 셋째, 성내지 않겠다. 넷째, 질투를 하지 않겠다. 다섯째,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여섯째, 재산을 내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겠다. 일곱째, 사법법을 모든 중생을 위해 행하겠다. 여덟째, 고독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에 걸리거나 재난을 당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끝까지 돌보겠다. 아홉째, 죄업을 쌓는 사람을 때에 따라 곱박시키고, 때에 따라 받아들여 구제하겠다. 열째, 정법을 받아들이고 결코 잊지않겠다.

이상의 열가지 서원을 1300년전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승만부인을 귀감 삼아 열심히 실천하려 노력했던 것이다. 이 열가지 서원은 현대에 있어서도 하나하나가 바로 지금 시작하여야 할 절실한 생활의 실천지표이기도 하다. 비로소 나는 (승만경)을 통하여 열가지 서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을 늘 반성하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승가수행법으로 환경화두 풀자”

문영석박사 논문...자비·채식등 대안제시



한국 승가(僧家)의 정진·채식·고행 등과 같은 절제된 수행법과 자비와 무해(無害)의 수행관이 현대사회에 투영되고 인간의 의식을 개혁할 때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코리아 저널) (한국유네스코) 여름호에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 승가의 대안’을 게재한 문영석박사(서울대 종교학 강사)는 “부처님이 최초로 승단(僧團)을 이룰 때 인도 고대 사상이나 아함사에서 승가

의 생활 규범을 세웠다”며 “한국 승가의 수행관에서도 비폭력 뿐만 아니라 무해(無害)·자비 등도 담고 있는 아함사 정신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승가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채식·고행·정진 등은 수행자가 세속적인 가치와 관심의 틀을 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삼독(三毒)에서 벗어나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한 문박사는 “이 수행법은 단순히 사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고귀한 깨달음을 얻고 대중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며 “극도로 절제된 수행법에서 생태학적 환경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관은 수행자의 생활 그 자체”라며 “한국

승가의 수행관·법이 사회의 문화에 접목될 때 소비적인 대중문화와 맞설 수 있는 대인(代案) 문화가 창출되고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불교계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드문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지적한 문영석박사는 “환경공학이 고도로 발전해 폐기물이 잘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인식 전환이 없이는 환경을 보존할 수 없다”며 “한국불교계는 승가의 수행관·법을 한국사회에 투영하고 환경이라는 화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속)

학술단신

“남북은 한우리 공동체” 법혜스님 논문 발표



법혜스님 (민족통일 불교중앙협의회 의장)이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UN을 중간자로 한 남북통일방안’을 주제로 8월20일 국가정책과정 졸업논문을 발표했다. 법혜스님은 “색(色)으로 보면 남·북은 구분이 되나 공(空)으로 보면 남·북은 일체(一體)인 것”이라며 남·북·UN 등이 ‘한우리공동체’를 설립해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안을 제안했다.

세계한민족학술대회 정신문화원, 4-6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영덕)이 제4회 세계 한민족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21개국 30여명의 해외 한국학 학자들이 참여할 이번 학술회의는 ‘21세기 재의 한인의 역할’을 주제로 9월4일~6일 2박3일간 개최된다.

무다피아 사이버 기행

카리빈카 다르마 노트

‘카리빈카 다르마 노트’는 인도에서 불교가 융성했던 3세기를 이끈 사상가 용수스님(龍樹, 150~250)의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온 사이트.

이 사이트에는 당시 인도의 종교학파와 선정문화에 대한 설명과 (화엄경)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인도와 중국에서 불교 전성기를 연 용수·현

용수·현장스님 주석서·어록 등 영역소개

장스님의 범어·중국어 주석서와 어록(語錄) 등을 영어로 번역해 놓았다. 이중에는 용수스님이 (반야경)을 주석한 내용도 소개된다. 또 ‘사무량심’ ‘신념’ ‘목동이 부처님의 전지(全知)를 시험하다’ ‘간타카의 이야기’ ‘수타소마왕이 불법을 찾다’ ‘프라산네드리아와 아그라마타의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한 용수스님의 개승 뿐만 아니라 (용수보살전)의 일부 내용도 열람할 수 있다.

범어나 팔리어 등의 원전(原典)을 공부하고 싶은 불자들을 위해 개설된 ‘카리빈카’ 사이트는, 원전공부를 위한 교리강좌도 개설해 놓고 있다. 여기에는 열화미소(Lotuses and Sunlight Simile) 무아(No-Self) 여시아문(I in Thus I Have Heard) 합성(Dhyaana) 등 50여개의 항목에 걸쳐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로밍’ (가져오기)이 가능하다. <http://www.teleport.com/~dh-mitral>

어린이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름방학 어린이 불교 교재 “우리들의 부처님”

어린이들의 고운 마음에 깊고 넓은 부처님의 가없는 마음을 심어주는 일은, 그들의 고운 꿈과 슬기로운 지혜를 한껏 일깨워주고, 마음을 바르게 키우는 일에 꼭 필요하며, 또한 불교의 앞날을 위해서도 더욱 필요합니다.



어린이 불교 교재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한국 불교 교재 편찬 위원회”에서 엮은 「불교 교재 1. 우리들의 부처님」을 관음출판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이책은 부처님의 생애와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 절에서 지킬 예의,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 부모은중경, 그리고 설화등 모든 불자와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 글 : 강석주 스님
■ 그림 : 정운문 스님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더없는 선물입니다.

관음 독송경(한정본) 시리즈

- 우리말 금강경 심재물/102쪽/값 2,500원
- 한문 금강반야바라밀경 심재물/108쪽/값 2,090원
- 우리말 물살아미타경 심재물/66쪽/값 2,000원
- 한문 물살아미타경 심재물/73쪽/값 2,000원
- 우리말 천지पाल인성경 이정범/57쪽/값 2,000원
- 한문 불살천지पाल인성경 이정범/60쪽/값 2,000원
- 우리말 예불대장회문 심재물/80쪽/값 2,000원
- 지장보살본원경 동봉/338쪽/값 6,000원
- 관각경보살보살경·팔왕경 경봉/86쪽/값 3,500원
- 관세음보살보살품 예불천수경

- 불교 성가집 정은문/385쪽/값 5,000원
- 어린이 천불가 정은문/222쪽/값 4,000원
- 불교성전 불교성전연구원/328쪽/값 4,500원
- 천수경 이지환/286쪽/값 4,500원
- 불교문답 이정범/228쪽/값 2,000원

* 법보시용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관음출판사 전화 921-8434/929-3470 FAX 929-3470

병 없는 세제로 가는 길

정신 육체를 위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체산제 복용 : 기아·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열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 열분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 (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선관단식(禪觀斷食)가이드북을 우송해 드립니다.

체험사례

“본인은 78세의 수의사인데,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사월초과일날 용남선원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감잎차와 미네랄이 풍부한 산야초효소 등을 섭취하면서 커피관장을 한 결과 몸속의 노폐물이 피부 밖으로 모두 배출되고, 속변이 2회 대량배출되어 현재는 피부와 머리카락이 어린이아이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어, 오늘은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퇴소를 합니다. 1997. 6. 1. 이 승호 합장



(경남 창원시 남양동 동성 APT 5동 1203호, Tel. 0551-62-4475)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남선원
안 내 : (0593)34-1115~6, 012-598-1015